



필름 수급동향

Trend of OPP, CPP, PET, Nylon Film

기업에서는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지금을 IMF 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라고들 말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포장 업계도 예외는 아닐 수 없다. 본지에서는 (사)한국포장협회를 중심으로 OPP, CPP, PET, NYLON 수급 동향을 알아보았다.

1. OPP 필름 업계

전체적인 동향으로 볼때 국내 내수 경기의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 식품업계, 합지, 섬유업계의 매출이 부진하면서 포장업계 특히 필름 레진업계에 그 영향이 끼치게 된다.

OPP시장을 보더라도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판매량이 감소됐으며 한정된 국내 시장에 공급 과잉으로 인해 업계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최저를 나타내고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때문에 OPP필름 생산업체간의 출혈경쟁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단가인하로 인한 채산

성 악화가 예상됨으로 수요대비 물량의 균형을 맞추고 신규 대체 시장의 개척이 필요하다.

현재 (사)한국포장협회에 가입돼 있는 OPP 생산업체는 대림산업(주), 삼영화학공업(주), 울촌화학(주), (주)화승인더스트리가 있으며 그간 OPP 필름을 생산해 오던 서통이 필름 사업을 KDB 론스타에 매각함에 따라 총 4개의 업체로 구성돼 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림산업(주)는 전주공장에서 OPP필름을 생산해 오고 있으며 후발 업체인 만큼 고객 요구 사항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고자 주력하고 있다.

대림 산업은 2개 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25,000톤의 생산 톱파로 수출 9,000톤, 내수 17,000톤을 생산해 총 26,000톤을 생산하면서 2001년 대비 수출과 내수가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고부가가치 필름(합성지 등)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삼영화학공업(주)은 포장용 BOPP 필름 생산 설비 증설로 5대의 라인을 보유하고 있어 업계 최대의 설비를 자랑하고 있으며 전체 톱파



특 집

[표 3] OPP 필름 (단위 공급량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대림산업(주)	2	25,000	9,000	17,000
삼영화학공업(주)	5	30,000	12,000	15,000
울촌화학(주)	3	26,000	3,000	23,000
(주)화승인더스트리	3	30,000	14,739	14,787

30,000톤에서 수출 12,000톤, 내수 15,000톤을 생산했다.

삼영화학은 고품질 제품, 고부가 제품의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울촌화학(주)은 1973년 설립돼 1985년 필름 1공장 준공 및 OPP필름 제조1호기를 가동시킨 이래 현재 3개 라인(일본 미쓰비시 1대, 독일 브로커너 2대)을 보유하고 있으며 2,600톤의 생산능력으로 수출 3,000톤, 내수 23,000톤을 생산했다.

울촌화학의 경우 계열사인 농심에 대부분의 물량을 공급하고 있어 대부분 자가 소모를 하고 있으며 내수의 경우 2001년 대비 58%의 증가를 보였다.

울촌화학은 공급과잉이 지속됨에 따라 USER 측의 원가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수입필름량이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 범용 OPP에서 기능성 OPP필름 생산으로의 제품 전환에 주력할 계획이다.

(주)화승인더스트리는 1969년 chemical shoes 공장을 설립한 이래 약 24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1990년 BOPP 필름사업을 시작했다.

(주)화승인더스트리는 3개 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30,000톤의 생산능력으로 수출 14,739

톤, 내수 14,787톤을 기록하며 2001년 대비 비슷한 물량으로 큰폭의 변화가 없음을 나타냈다.

(주)화승인더스트리는 어려운 OPP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당사 강제 품목을 중심으로 한 매출 증대와 신규 거래처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매출 신장에 주력할 계획이다.

2. CPP 필름 업계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인 삼민화학공업(주), 삼영화학공업(주), 유상공업(주), (주)성일화학, 삼진화학(주)를 중심으로 2003년도 CPP 시장을 알아본 바 업체별 생산 껍과는 예년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 큰 변동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CPP의 경우 자가 소비량이 많은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 식품 포장 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격적인 면에서는 톤당 270원~290원으로 다른 레진 보다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CPP업계 조사 결과 국내 경제 위축으로 인한 매출의 시장은 없었고 증착 CPP의 경우 수출 감소로 인한 매출의 감소세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약진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신소재 제품 개발의 부진으로 인해 시장

[표 3] CPP 필름 (단위 공급량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삼민화학공업(주)	2	7,000	700	6,300
삼영화학공업(주)	1	450	50	350
(주)성일화학	3	6,000		4,000
유상공업	3	6,600	1,980	4,620

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전체 동향으로 볼 땐 그간 CPP 필름을 생산해 오던 6개 업체 중에서 서통이 필름 사업을 KDB 론스타에 매각되고 후발 업체인 기린화학의 CPP 생산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체적인 변동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30여년의 역사를 지닌 삼민화학은 인천 부평 공장을 설립하고 87년 반월공장을 설립하여 연간 3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삼민화학은 2대 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7,000톤의 캡파로 수출 700톤, 내수 6,300톤을 생산했다.

지난 2002년 조사 결과 CPP시장의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하던 서통의 경우 주력 사업인 포장용 필름 사업을 KDB 론스타 컨소시엄에 매각했으나 필리핀에서 포장용 필름을 생산하는 필리핀 현지법인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통은 필름 사업부문 매각 후 테이프와 포장용 랩, 생산가전 사업 부문에 핵심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전체 3개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유상공업은 6,600톤의 캡파로 수출 1,980톤, 내수 4,620톤을 생산했다.

유상공업은 지난 2002년의 경우 2001년 대비 큰 호조세를 보여 왔으나 국내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여느 업체와 같이 2002년 대비 큰 변동이 없음을 나타냈다.

성일화학은 1970년 설립돼 식품 포장용 PP필름, 농업용 PE 필름, 그라비아 인쇄 식품 포장용기 등을 생산해 오고 있다. 성일화학은 전체 3

개 라인을 갖추고 6,000톤의 캡파로 내수 4,000톤을 생산하면서 2002년 대비 신장세를 보였으며 이는 전량 식품포장용으로 사용됐다.

삼영화학은 포장재용 필름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로 BOPP, CPP필름의 콘텐츠용 필름, PVC-PE랩을 생산해 오고 있다.

삼영화학은 1개 라인을 갖추고 있는 삼영화학은 450톤의 캡파로 수출 50톤, 내수 350톤을 기록했다.

삼영화학은 내수시장 판매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 거래선 다변화로 판매 증진을 추진중에 있다.

3. PET 필름 업계

지난 2002년 (사)한국포장협회 PET필름 생산 회원사 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생산능력 328,000톤에 수출 155,700톤, 내수 169,400톤을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01년과 비교했을 때 수출은 44,350톤 내수 18,750톤 증가한 수치이다.

국내 최다 PET 필름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SCK(주)는 지난 1978년 국내 최초로 세계 5번째인 PET 필름을 개발, PET 필름 생산기술에 대해 '기술보호 1호'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 국내 10만톤, 미국에 3만톤의 생산캡과와 세계 4위의 마켓셰어를 보유, 유럽과 동남아 등지로 활발한 수출을 펼치고 있다.

2002년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SCK(주) 전체 PET 필름은 수출 70,000톤 내수 60,000톤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중 포장용은 25% 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내수 1,000톤 수급 1,500~2,500톤의 스탬핑 포일(stamping



특 집

[표 3] PET 필름

(단위 공급량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SKC(주)	16	130,000	70,000	60,000
도레이새한(주)	8	92,000	36,600	58,900
(주)코오롱	7	77,000	38,000	36,000
(주)희승인더스트리	1	15,000	6,500	8,500
(주)효성	1	14,000	4,600	6,000

foil)을 생산하고 있다.

SKC(주) 관계자는 현재 PET 필름 업계는 수요는 계속 증가하지만 신규진입이나 증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타이트한 공급 형태를 보여 당분간 공급부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작년 하반기 이후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일부 PET 가격 인상이 있었지만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가격 인상이 큰 폭으로 나타나지 않아 올 하반기에 PET 필름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1985년부터 폴리에스터 베이스 필름 '엑셀'을 개발해 온 도레이새한(주)의 경우 자기기록용 필름을 비롯, 산업용, 전기전자용, 포장용, 그래픽용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3.5 μ m대의 초극박막필름에서부터 188 μ m대의 필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의 필름을 보유하고 있다.

총 8개 라인 연산 92,000톤의 캡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2년 수출 36,600톤 내수 58,900톤을 공급했다. 도레이새한의 PET 필름은 마그네틱용으로 전체의 50%를 생산하고 있으며 라비넥스 용도로 20%, 기타로 전기 절연용, 콘덴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전체의 15%가량을 포장용으로 생산하고 있

는 도레이새한 PET 필름은 우수한 가스 및 수분 차단성으로 각종 식품포장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증착 및 PE, OPP 등과 라미가공시 용이한 가공성을 나타낸다.

특히 다양한 표면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그라비아, 플렉소, UV인쇄 등 인쇄시 접착력 부여, 코로나 처리, 알루미늄 증착시 접착력 증대 혹은 투명 증착용으로 고객의 가공 적성에 알맞는 세분화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도레이새한(주)의 PET 필름은 품질과 기술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보유, 현재 세계시장에 수출되고 있으며, 세계적 필름메이커인 일본 도레이사와의 기술적 협력으로 고부가가치 신제품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주)코오롱의 경우 지난해 고품이 보유하고 있던 PET 필름 2개 라인을 인수함에 따라 7개 라인 77,000톤의 생산캡파를 보유하게 됐다.

지난해 수출 38,000톤 내수 36,000톤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중 포장용은 전체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코오롱 포장용 PET 필름은 뛰어난 기계적 특성과 열적안정성을 지니고 있어, 일반포장인쇄, Laminating, 증착제품군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주)코오롱의 경우 1985년 PET 베이스 필름을 자체 기술로 개발, 생산하여 필름사업에 진출한 이래 나일론 필름, DFR, 그래픽아트 필름 등의 분야로 그 소재를 다양화하며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1997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PET 및 NYLON 필름을 생산했다.

고합의 울산공장 PET 필름 2개라인의 인수에 따라 (주)코오롱은 고부가가치별화 제품에 주력하고 설비 및 안정 가동을 추구하고, 2003년도 수출

39,000톤, 내수 37,000톤 가량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화승인더스트리는 97년 1개라인의 PET 필름을 생산 가동한 이래 전체의 40% 가량을 포장용으로 25% 가량을 증착용으로 생산하고 있다. 15,000톤의 생산캡과 아래 (주)화승인더스트리는 수출 6,500톤 내수 8,500톤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개 라인 14,000톤의 생산캡과를 가지고 있는 (주)효성은 지난해 4,600톤의 수출과 6,000톤의 내수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효성은 Magnetic 수준의 최신 설비와 고도의 생산기술로 포장용 및 각종 산업용 필름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식품포장 용도에 있어서는 FDA 공인을 통해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효성의 경우 PET 필름의 90% 이상을 포장용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 NYLON 필름 업계

(주)코오롱, (주)효성, 그리고 고합 나일론 필름 2개 라인을 인수한 하니웰코리아, 이상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NYLON 필름 캡과는 총 123,000톤 수출 6,800톤 내수 2,500톤으로 조사됐다. 7개 라인을 보유, 지난 1991년 NYLON 필름 생산을 시작한 (주)코오롱은 올해 수출 4,000톤 내수 3,000톤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주)코오롱 NYLON 필름은 뛰어난 중형방향 BALANCE성으로 인해 인쇄, 합지(LAMINATING), 제대(SEALING) 공정에 적합성을 보이며 120℃의 고온에서의 가압열 살균공정에

[표 4] NYLON 필름 (단위 공급량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주)코오롱	2	7,000	4,000	3,000
(주)효성	1	2,300	800	1,200
하니웰코리아	2	3,000	2,000	1,000

서 열변형이 생기지 않으며, 영하 60℃의 저온에서도 충격 및 PINHOLE에 견디는 내구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특히 포장인쇄에 우수한 적성을 나타내 진공포장, 냉동식품포장에 적합하다.

(주)효성은 세계 최초로 Triple Bubble Plus System을 채택, 독자적인 Nylon 이축연신 Film 생산기술을 개발, 발전시켜 타 Process 대비 균일한 물성을 지닌 Film을 공급하고 있다. (주)효성은 2,300톤의 생산캡과를 보유, 지난 2002년 수출 800톤 내수 1,200톤을 공급했다.

고합 NYLON 필름 2개 라인을 인수한 하니웰코리아의 경우 3,000톤의 생산캡과를 보유, 수출 2,000톤 내수 1,000톤의 실적을 예상했다.

현재 NYLON 필름의 경우 공급 측면에서 수출 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이 타이트하며 이러한 수급 동향은 하반기에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말 구미 1개 라인과 2005년도 중국 1개 라인의 NYLON 필름 생산을 가동 예정하고 있는 (주)효성과 현재 1개 라인을 가동하지 않고 있는 하니웰코리아의 나머지 1개 라인이 가동될 경우 과열되는 경쟁과 함께 현재 NYLON 필름 생산캡과 1위를 달리고 있는 (주)코오롱과 업체 간 생산캡과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ko]